

청소년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효과연구*

강현주** · 노충래***

초 록

청소년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생태체계적관점은 지역환경의 중요성을 논의하여 왔지만 대부분 이론적 차원에 그쳐 구체적, 경험적 차원의 시사점을 얻는데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체계인 자아개념과 지역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대한 거시체계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복지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고 한국청소년패널 자료와 국가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준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자아개념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자아개념 발달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고, 지역의 한부모 비율과 범죄발생율도 지역 간 편차를 유발하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소년들이 인지한 지역사회애착과 지역무질서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단위의 집합적 개입 등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주제어 : 자아개념, 지역효과, 지역환경

*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12년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dmo@ewha.ac.kr

I. 문제제기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자기 스스로 내리는 주관적, 객관적 평가를 우리는 자아개념(self-concept)으로 정의한다. 자아개념은 인간행동을 결정짓고,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하며, 일생동안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구조이다(송인섭, 2000; 이사라, 2000). 자아개념은 청소년 시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신체, 정신적 변화는 물론 가족, 친구 등 사회적 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자아개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요인이 자아개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가족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요인과 인접환경인 학교환경이나 교사,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요인 등이 자아개념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밝혀져왔다(이사라, 2000; 이미혜, 2002; 이동원, 2005; Rosenberg, 1985; Nottlemann, 1987).

선행연구들은 자아개념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체계와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과 가족, 학교 등 가까운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을 뿐, 지역환경에 대한 구체적, 경험적 차원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였다.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여러 환경체계와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예: 윤혜미, 박병금, 2005; 황혜원, 2011)도 이론적 논의에 그칠 뿐 지역환경의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것은 지역구조가 가정이나 학교 같은 환경체계에 비해 범위설정이 애매하고, 계량적으로 다루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소속된 집단,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개인을 둘러싼 가족도 지역환경의 영향권 안에 배태된(nested)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기능과 자원, 친구관계, 학교요인 모두 지역이라는 거시환경의 구성과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Brooks-Gunn, Duncan & Aber, 1997).

최근에는 지역환경이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지역효과(area effect)¹⁾’ 혹은 ‘지역의 맥락효과(contextual area effect)’를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효과란 거시체계인 지역의 특성이 미시체계인 개인의 행동과 삶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들의 합으로부터 기인하는 구성적 효과(compositional effect)를 넘어 지역의 독자적인 영향력이 개인에게 존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곽현근, 2008). 초기의 지역효과 연구는 청소년 비행과 지역환경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비행이 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적 요인 외에 거주지역의 환경적 맥락(environmental context)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개인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역요인의 영향력이 밝혀지고 있다(Shaw & Mckey, 1942; 정문성, 1992 재인용).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즉 자아개념(self-concept)이 존재하고, 자아개념은 환경과 행동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개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심리기제이다(송인섭, 2000; 이동원, 2005).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성행동, 일탈 등 각종 외현화 문제(Crane, 1991; Rodgers & Rowe, 1993; Duncan, Jones & Moon, 1999; Ross & Mirowsky, 2001)와 우울, 불안, 무력감과 같은 내재화문제(김희윤, 2010; 김영미, 2010; Aneshensel & Sucoff, 1996; Haney, 2007; Hart, Atkins & Matsuba, 2008; Santiago, Wadsworth & Stump, 2011)에 대한 지역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지역환경과 자아개념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지역효과 연구가 주로 지역환경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점과, 자아개념에 있어 미시적 접근만이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자아개념은 개인과 인접환경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자아개념의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개인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자아개념의 지역 간 차이를 일으키는 지역요인은 무엇인가?

1) 지역효과는 community effect, area effect, contextual community effect, neighborhood effect 등 다양하게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경계를 강조한 개념으로 “area effect”를 적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아개념과 청소년기

자아는 “객관화된 자기(objective self)” 혹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로 표현될 수 있으며, 주위환경과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환류체계(feedback system)에 의해 변화·발달한다(이사라, 2000). 따라서 자아개념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 자체보다는 경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자아개념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엄신자, 2008; Rogers, 1983).

이러한 자아개념의 구조는 복잡적이다(송인섭, 1994; Shavelson & Bolus, 1982). 즉 다면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송인섭, 2000), 종적으로는 가장 상위에 일반적 자아개념이 있고, 바로 아래에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념이 있으며, 이는 다시 학습자아, 성취자아, 능력자아, 사회적 자아 등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로 세분화된다. 최근 연구들은 자아개념을 구체적 하위영역으로 세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행예측을 위해서 부정적 자아개념인 일탈적 자아개념만을 자아개념으로 정의한 연구(이은주, 정익중, 2010), 학업우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패내성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학문적 자아개념만을 다룬 연구(김영빈, 2008),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 간 학문적 자아개념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정수자, 1999)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자아개념의 세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긍정적 자아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들의 특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하위 자아개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가지는 함축적 태도로서의 전반적인 자아개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아개념은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특성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즉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발달은 물론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혼란과 불안 겪으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적 발달단계에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계속 의존하려는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때의 자아개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동원, 2005; 홍영수, 김동기, 2011;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Caspi, 2005). 그리고 자아개념은 각종 문제행동과 발달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홍영수, 김동기, 2001; 이미혜, 2002; 최장원, 김희진, 2011; Donnellan et al., 2005). 따라서 어떤 요인에 의해 청소년기에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지역효과의 이론적 고찰

“지역효과(area effect)”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역특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지역구성원들의 개인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개인의 삶에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곽현근, 유현숙, 2007; 곽현근, 2008). 지역효과에 관한 이론들은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적관점을 큰 이론적 틀로 삼고 지역효과 발생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염이론, 낙인효과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생태체계적관점은 다양한 환경체계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인간과 지역환경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다른 지역효과 이론들의 대전제가 되고 있다. 생태체계적관점은 이론(theory)이라기보다는 관점(perspectives)이고, 그 자체가 메타 패러다임적(meta-paradigm) 성격을 갖기 때문에(김동배, 이희연, 2003; 이상균, 2005) 다학문적인 사회복지학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생태체계적관점에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여러 겹의 환경체계는 각각이 유기체로 이해되며, 개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적응한다(Turner,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체계적관점은 개별 청소년에게 미치는 지역환경체계의 영향력과 양자 간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게 하고, 부모-자녀 관계 외에도 가족, 친구, 이웃, 사회 등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환경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생태체계적관점은 미시체계는 중간체계에 중간체계는 큰 층위의 거시체계 속에 내포된 구조(nestedness)로 설명되기 때문에 개별 청소년이 가족 및 특정 지역사회에 속하는 구조를 다루는 본 연구의 다층분석모형의 구조와 일치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한편 지역효과 발생의 구체적인 경로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 있다. 전염모델(contagion model)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그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행동의 유형들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트린다는 것을 가정한다(Boardman & Robert, 2000). 따라서 취약지역의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역할모델을 접하기 어렵고, 실업자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이들과 교류함으로써 부정적인 학습화가 나타난다. 또래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반영한 모델로 평가된다.

낙인효과모델(stigmatization theory)은 외부의 낙인에 의해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흔히 그가 속한 범주(예: ○○학교학생, ○○시민, ○○구청주민 등)를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범주에 의거해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판단한다. 취약지역 주민들은 기업이나 정부,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이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어버린다(Haney, 2007).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통해 취약지역 거주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은 비취약지역 거주자들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특히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청소년에게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김위정, 2004; 곽현근, 2008; Musterd & Anderson, 2006).

3. 지역요인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지역효과를 일으키는 요인은 대부분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이었다. 지역은 공간적 차원에서 ‘분산된 빈곤’보다 ‘집중된 빈곤’으로 인해 개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Jenks & Mayer, 1990; Hart et al., 2008).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빈곤 외 한부모 가구비율, 실업률, 공공복지수혜자비율, 부모의 교육수준, 전문직비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지표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이들이 청소년 발달과 행동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곽현근, 2008; 김세원, 2009; 김영미, 2010; Ellen & Hurley, 2008; Hull, Kilbourne, Reece & Husaini, 2008; Elo, Mykyta, Margolis & Culhane, 2009; Santiago et al., 2011).

자아개념과 지역환경 간의 관계를 다룬 국내연구는 도시, 농촌, 어촌 등 지역유형에 따라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 점수가 달라지거나 도시화 정도에 따라 남녀 간 자아개념 발달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연구(이주옥, 1987)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자원이 적은 지역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게 나타난 연구(서혜은, 2009)등이 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단위의 자원제공과 복지서비스 지원은 해당지역 청소년의 학업, 가족관계, 자아개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온다는 연구도 있다(정연정, 엄명용, 2009).

국외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발달과 거시체계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종종 발견되는데,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구성원들은 거주지역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체감과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Adams & Marshall, 1996; Atkins & Hart, 2003). 또한 지역소득은 주민의 자기평가 특히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한계 수준(threshold)을 넘어서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Turley & López, 2003). 지역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폭력이나 범죄노출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보고 빈도가 높을수록, 거주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비행, 무기력, 우울 등의 외현화, 내재화의 문제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희, 조영태, 2008; Durant, Cadenhead, Pendergrast, Slavens & Linder, 1994).

한편 최근에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 요인(dynamic factors)으로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인식과 지역애착이나 유대 혹은 인지된 무질서 변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Altman과 Low(1992)는 청소년들이 거주지역에 대한 애착감정을 갖게 되면 자신의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믿는 지역안정감을 높여 긍정적인 자기인식이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무질서한 지역환경은 주민들을 무기력하고 부정적으로 강화하여 낮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eis & Ross, 1998; Ross & Mirowsky, 2001).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전국 단위의 한국청소년패널(KYPS) 자료, 국가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KYPS는 200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매 해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반복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자료이다. 지역에 관한 자료는 연구자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계청, 국토지리정보원, 중앙행정부처 등으로 부터 직접 수집하였다.

지역연구에 있어 지역의 경계설정은 중요한 이슈인데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지역측정 단위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시·군·구’는 서구에서의 ‘동네(neighborhood)’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참여의 단위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집합적 개입의 최소단위이다. 또한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공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복지 분권화로 인한 지역 간 편차를 볼 수 있는 단위이며(최일섭, 이현주, 2006). 현실적으로 매년 인구, 환경, 경제, 교육, 복지, 보건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연보 등이 ‘시·군·구’ 단위로 발행되므로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차년도 패널자료인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다. 특별히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지역환경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점을 중기 청소년기인 15-17세라고 밝힌 선행연구(Dallago et al., 2009)를 근거로 할 때 한국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및 학급에서의 적응과 대학입시라는 부담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역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2.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개념은 일반적 자아개념으로 전반적인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이미리, 2005; 이동원, 2005;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Rosenberg(1969)의 자아존중감 척도 중 일부로서 자신을 얼마나 가치롭고 유용하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느냐를 측정하는 문항들과, 문제해결 자신감, 삶에 대한 주체성, 자기결정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자기확신(자신감)문항들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척도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아, 도덕적·사회적 자아, 자기확신(자신감)에 대한 자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9개 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일부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임을 의미한다. 전체 자아개념의 Chronbach's alpha 계수는 .805 이다.

표 1
종속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자아 개념	자질·능력관련 자아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사회적 자아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확신·(자신감) 자아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2) 독립변수

(1) 개인수준의 변수

개인수준의 변수는 인구학적 변수(예: 성별, 소득, 부모학력, 가족유형)와 학업성취도를, 관계적 변수로는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지역애착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지역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하위개념 중 하나인 ‘애착’의 확장으로 구성한 문항들이다. 지역 주민들끼리의 만남의 빈도, 신뢰도, 친밀도, 감독기능 등을 통해 청소년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애착을 느끼는지를 측정한 개인수준의 변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지역애착의 Ch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891, .782, .819, .826 이다.

표 2

개인수준 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관찰수	M(S.E)	범 위
인구 학적 변수	성별	남자=1, 여자=0	남: 1,566(51%) 여: 1,555(49%)	
	가구소득	근로, 이자, 임대, 연금 등 모두 합한 평균 월소득 (단위: 만원)	3,121 명 322.5만원 (182.5만원)	0~4500
	가족형태	양친부모와 동거=1, 그 밖의 여러 형태의 가족=0	1= 2,840(82.3%), 0= 243(7.0%)	
	학업 성취도	주요 5개 과목의 반성적. 숫자 클수록 높은 성적을 의미함	3,121 명 2.72(.66)	1~5
	모의학력	무학=1, 초·중졸=2, 고졸=3, 대졸=4, 대학원졸=5	21(0.6%), 509(14.7%), 1,806(52.4%), 660(19.1%), 44(1.3%)	
관계적 변수	부모애착 (6문항)	부모와의 사랑, 대화, 이해의 정도	3,121 명 3.45(.75)	1~5
	친구애착 (4문항)	친구와 생각, 감정, 고민을 나누는 도	3,121 명 4.23(.62)	1~5
	교사애착 (3문항)	교사를 닮고 싶은 정도, 고민, 관심 나누는 정도	3,121 명 2.64(.87)	1~5
	지역애착 (6문항)	주민 간 만남의 빈도, 신뢰도, 친밀도, 감독기능의 정도	3,121 명 2.86(.75)	1~5

(2) 지역수준의 변수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와 지역 구성원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조적 지역 변수는 외부 행정자료를 직접 입력하여 패널자료와 병합하였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빈곤선이하의 가구비율, 한부모 가구비율, 여성가장 가구비율, 남성실업률, 지역소득 등이 사용된다(Boardman & Robert, 2000).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총인구 대비 한부모 가구원수를 계산한 지역 한 부모비율 변수와 지역의 월평균 소득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 지역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들의 평균학력, 범죄발생률, 문화복지시설 수 등을 사용하였다. 지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변수는 패널데이터 중 지역사회애착(Chronbach's alpha =.826)과 지역무질서(Chronbach's alpha =.779)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애착은 개인변수인 지역 애착과 달리 청소년들의 거주지에 대한 애착수준을 지역단위 수준에서 측정한 지역변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 전체의 애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임을 의미한다.

무질서 변수는 Ross와 Mirowsky(2001)의 12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한 것으로 물리적 무질서 2문항과 사회적 무질서 2문항으로 4개 문항의 합산변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 지역에 대해 무질서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3 참고).

표 3

지역수준 변수의 구성

	구 분	문 항	지역수	M(S,E)	범위
구조적 지역 변수	지역한부모비율 ²⁾	(지역 한부모 가구원수/인구X1000)	147	.355(.19)	0~1.27
	지역평균소득	지역평균 월소득액 (단위:만원)	147	322.5(182.5)	0~4500
	지역모학력	무학=1, 초중졸=2, 고졸=3, 대졸=4, 석박사=5	147	3.21(.46)	1~5.33
	지역범죄발생률 ³⁾	범죄발생총건수/인구X100,000	147	3.71(1.53)	2.35~12.45
	지역문화복지시설 ⁴⁾	지역문화복지시설수/인구X 10,000	147	.22(.28)	.02~1.98
인지적 지역 변수	지역사회애착 (6문항)	지역주민간 만남빈도, 신뢰도,관심도	147	2.87(0.99)	1~5
	지역무질서 (4문항)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147	2.48(0.24)	1~5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행정정보공개청구 2007행정자료(2006년 데이터)

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다수준 모형은 분석수준이 다른 대상의 특성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즉 분석자료가 수준을 달리한 위계적인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지역 유형의 2수준 다층모형(multi-level analysis model)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TATA 11.0을 이용하였고 일반자료특성에 대한 검토나 기초통계분석은 SPSS 17.0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2수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의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evel-1

$$Y_{ij} = \beta_{0j} + \beta_{1j} X_{ij} + \varepsilon_{ij} \quad \text{----- (수식:1)}$$

$$\beta_{0j} = \gamma_{00} + u_{0j}$$

$$\beta_{1j} = \gamma_{10}$$

level-2

$$Y_{ij} = \beta_{0j} + \beta_{1j} X_{ij} + \varepsilon_{ij} \quad \text{----- (수식:2)}$$

$$\beta_{0j} = \gamma_{00} + \gamma_{01} Z_j + u_{0j} \quad \text{----- (수식:2-1)}$$

$$\beta_{1j} = \gamma_{10} \quad \text{----- (수식:2-2)}$$

$$Y_{ij} = (\gamma_{00} + \gamma_{10} X_{ij} + \gamma_{01} Z_j) + (u_{0j}) + \varepsilon_{ij}$$

개별청소년: I, 지역: j,

Z는 level-2의 지역변수, Y는 지역 j에 거주하는 청소년 I의 자아개념 점수

3)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 범죄분석 보고서 II

4)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gii.go.kr>) 자료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앞 장 표 2, 표 3에서 변수를 설명하면서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남녀학생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고, 지역은 전국 147개, 양부모와 동거하는 가구형태가 82.3%로 많았고, 친구애착이 다른 애착변수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격적인 자료분석에 앞서 자료분포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허용값(Tolerance)을 검토하였으나 0.4 이하, 분산팽창지수(VIF)는 2.5 이상으로 별 문제는 없었다. 결측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imputation)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측치 비율이 9.1% 인데 전체 표본의 수가 커 다수준 분석의 일반적 방식인 완전제거법을 적용하였다(결측치 제거 후 전체 분석대상은 3,121명이다). 자료분포의 정규성은 회귀모형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중심극한정리에 의해 어느 정도 보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특별히 왜도와 첨도가 높은 소득변수(왜도: 5.21 첨도: 9.51) 로그변환 하였다. 개인수준 변수와 지역수준 변수는 각각 분리하여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변수의 상관계수가 지나치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요인 중 범죄발생율, 지역무질서 변수는 종속변수인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수준 다층모형의 분석결과

1) 모형 0 (무조건적 절편모형 null model)

이 모형은 독립변수가 전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 및 지역변량이 구분되어 제시된다. 총변량 중 지역수준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을 계산한 ICC(intra class correlation value)값은 0.052이다. 상위수준인 지역이 설명하는 변량의 크기가 5.2%라는 뜻으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초모형의 집단내 상관관계인 ICC값은

0.05- 0.30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Bliese, 2000). 최대우도비 검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의미있는 크기로 확인되어, 다수준 모형의 설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은 그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4

기초모형 통계요약

	null model		
고정효과(fixed effect)	estimates	s.e	p
절편	30.744	.136	.000
무선효과(random effect)	variance component		
지역수준 분산	1.26	.29	
개인수준 분산	22.98	.59	
최대우도비검정 (maximum likelihood ratio test)	-2(ΔLL) 61.01	df 1	.000

* $p < .10$, ** $p < .05$, *** $p < .001$

$$Y_{ij} = \gamma_{00} + u_{0j} + e_{ij}$$

$$ICC(\text{지역}) = \frac{\sigma^2_{u0}}{\sigma^2_{u0} + \sigma^2_e} \quad ICC = 1.26 / (1.26 + 22.98) = .052$$

2) 모형 1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_{ij} = \gamma_{00} + \gamma_{p0} X_{pij} + u_{0j} + e_{ij} \quad (\text{수식:2-1})$$

$$\begin{aligned} \text{selfconcept}_{ij} = & (\gamma_{00} + \gamma_{10}(\text{성별})_{ij} + \gamma_{20}(\text{소득})_{ij} + \gamma_{30}(\text{성적})_{ij} + \gamma_{40}(\text{모학력})_{ij} \\ & + \gamma_{50}(\text{가족유형})_{ij} + \gamma_{60}(\text{부모애착})_{ij} + \gamma_{70}(\text{교사애착})_{ij} + \gamma_{80}(\text{친구애착})_{ij} \\ & + \gamma_{90}(\text{지역애착})_{ij} + u_{0j} + e_{ij} \end{aligned}$$

모형1은 무선절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으로 1수준(개인수준)의 독립변수가 투입된 모형에서 기울기가 0으로 고정되어 있는 모형이다. 표 5에서 모형 1을 보면 고2 청소년의 전체 자아개념 평균값은 13.44이다. 전체 모형에서 개인수준변수들이 투입되어 설명되는 개인수준 변량의 설명력은 15.7%이다($R^2 = .157$) 여학생보다 남학생 자아개념 점수가 평균적으로 1.02 만큼 높고, 학업성취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자아개념은 0.26 만큼 증가하였다. 성적이 높아질수록 자아개념도 증가하여 청소년기 학교라는 집단에서의 학업성취의 경험은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이미혜, 2002; 김지영, 이형실, 2010; 김순혜, 2010). 그리고 개별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지역빈곤율과 청소년 발달과는 대체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정문성, 1992; 김세원, 2009; 김희윤, 2010).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자아개념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경제적 자본이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 모의 학력은 직접적으로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변인으로 투입한 부모, 교사, 친구, 지역애착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의 결과를 종합할 때 가정의 구조적 상황이나 부모의 외적 조건 자체보다는 학업성취와 같이 환경으로 부터 얻는 경험이나 애착형성과 같이 의미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자아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Shavelson, Huhner & Stanton, 1976).

표 5

자아개념 결정요인에 관한 2수준 다층모형 분석결과(N=3,121)

		모형0 B(s.e) (null model)	모형1 B(s.e) (개인독립변수)	모형2 B(s.e) (지역의 구조변수)	모형3 B(s.e) (지역의 인식변수)
고정효과(fixed effect)					
level 1. 개인변수 자아개념전체평균		30.74(.14)	13.44(1.17)***	10.41(3.58)***	8.51(4.90)***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1.02(.19)***	1.08(.20)***	1.09(.20)***
	학업성취		.26(.03)***	.23(.03)***	.23(.03)***
	(로그)소득		.44(.19)**	.31(.21)	.30(.22)
	가족유형		-.04(.35)	.02(.40)	.02(.40)
	모학력		.05(.09)	.08(.10)	.08(.10)
관계적 요인	부모애착		.26(.02)***	.27(.02)***	.26(.022)***
	교사애착		.13(.03)***	.10(.04)**	.09(.04)**
	친구애착		.20(.03)***	.23(.04)***	.23(.04)***
	지역애착		.05(.02)**	.08(.03)***	.08(.02)***
level 2. 지역변수					
구조적 지역 요인	한부모비율			1.24(.61)**	1.24(.62)**
	(로그) 지역 소득			.37(.78)	.49(.81)
	지역모학력			.43(.39)	.41(.40)
	범죄발생율			-.22(.07)**	-.22(.07)**
	지역문화 복지시설			1.98(1.24)	1.98(1.25)
인지적 지역요인	평균지역 사회애착				.09(.10)
	평균 지역 무 질서				.02(.13)
무선효과(random effect)					
σ^2_{eij} 개인수준변량		22.98(.59)	19.37(.52)	19.51(.58)	19.52(.58)
σ^2_{u0j} 지역수준변량		1.26(.29)	.64(.19)	.28(.16)	.29(.17)
$-2\Delta LL (\chi^2)$		61.01*** (df=1)	2164.13*** (df=9)	3097.72*** (df=5)	-4.2404 (df=2)
누적된 개인수준의 R^2			.157	.151	.150
누적된 지역수준의 R^2			.491	.777	.777

* $p < .10$, ** $p < .05$, *** $p < .001$

4) 모형 2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_{ij} = \gamma_{00} + \gamma_{p0} X_{pij} + \gamma_{0q} Z_{qij} + u_{0j} + e_{ij} \quad (\text{수식:2-2})$$

$$\begin{aligned} \text{selfconcept}_{ij} = & (\gamma_{00} + \gamma_{10}(\text{성별})_{ij} + \gamma_{20}(\text{소득})_{ij} + \gamma_{30}(\text{성적})_{ij} + \gamma_{40}(\text{모학력})_{ij} \\ & + \gamma_{50}(\text{가족유형})_{ij} + \gamma_{60}(\text{부모애착})_{ij} + \gamma_{70}(\text{교사애착})_{ij} + \gamma_{80}(\text{친구애착})_{ij} + \gamma_{90} \\ & (\text{지역애착})_{ij} + \gamma_{01}(\text{한부모비율})_j + \gamma_{02}(\text{지역소득})_j + \gamma_{03}(\text{지역모학력})_j + \gamma_{04}(\text{범죄} \\ & \text{발생율})_j + \gamma_{05}(\text{지역문화복지시설})_j + u_{0j} + e_{ij} \end{aligned}$$

모형 2은 모형 1에 지역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모형 2는 개인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구조적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으로 한부모비율, 지역소득, 지역모학력, 지역범죄율, 지역문화복지시설 수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한부모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범죄발생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자아개념에 대한 개인변수들의 영향력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이들 지역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이 존재하고 그 설명력의 수준은 전체모형의 28%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⁵⁾ 전체모형의 설명력도 모형1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향상되었다(-2 $\Delta LL(\chi^2=3097.72, p<.001)$).

범죄발생율의 경우 고정효과의 회귀계수가 -.22로 음수(-)로 나타나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범죄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소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심리사회적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문성호, 2000; 김세원, 2009;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Mazefsky & Farrell, 2005; Thaweekoon, 2006). 한편 지역의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모형 1에서 개별가정의 소득수준의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2에서 지역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는 개별소득의 영향력도 사라졌다. 따라서 개인소득도 지역전체의 소득수준도 청소년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지위변수 중 한부모비율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비율이

5) 모형2의 누적된 지역수준 변량예측치 77%에서 모형1의 지역수준 변량예측치 49%를 빼면 모형2에서의 지역수준 변량의 설명력이 산출된다.

높은 지역에 사는 청소년일수록 그들의 자아개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증가하고, 심리사회적 적응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는데(김세원, 2009; Sampson & Raudenbush, 1999; Sampson, Mornoff & Gannon-Rowley, 2002), 본 연구에서는 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청소년기 민감한 가정문제에 대해 상대적 비교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자료구조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 조사응답자의 대다수인 82.3%가 양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외부자료인 지역별 한부모비율 변수를 결합했을 때 개별 청소년이 지역내 다른 가정상황과 자신의 가정상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만족감 혹은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 모형 3 (조건모형-무선절편모형)

$$Y_{ij} = \gamma_{00} + \gamma_{p0} X_{pij} + \gamma_{0q} Z_{pij} + \gamma_{0q} \underline{Z'_{pij}} + u_{0j} + e_{ij} \quad (\text{수식:2-3})$$

$$\begin{aligned} \text{selfconcept}_{ij} = & (\gamma_{00} + \gamma_{10}(\text{성별})_{ij} + \gamma_{20}(\text{소득})_{ij} + \gamma_{30}(\text{성적})_{ij} + \gamma_{40}(\text{모학력})_{ij} \\ & + \gamma_{50}(\text{가족유형})_{ij} + \gamma_{60}(\text{부모애착})_{ij} + \gamma_{70}(\text{교사애착})_{ij} + \gamma_{80}(\text{친구애착})_{ij} + \gamma_{90}(\text{지역애착})_{ij} \\ & + \gamma_{01}(\text{한부모비율})_j + \gamma_{02}(\text{지역소득})_j + \gamma_{03}(\text{지역모학력})_j + \gamma_{04}(\text{범죄발생율})_j \\ & + \gamma_{05}(\text{지역문화복지시설})_j + \gamma_{06}(\text{평균지역사회애착})_j + \gamma_{07}(\text{평균지역무질서})_j + u_{0j} + \varepsilon_{ij} \end{aligned}$$

모형 3에서는 구조적 지역변수가 투입된 모형 2에 인지적 지역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 모형은 지역이 갖추고 있는 조직이나 구조적 측면보다 실제 지역이 어떤 역동(dynamic)을 가지고 있는지, 주민 간 유대가 어느 정도이며, 지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개별 구성원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인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인지적 지역요소의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하고자 설정한 모형이다. 선행 연구들(예: 전신현, 2003; 최미영, 2007; 고수정, 2010)을 볼 때 지역유대, 네트워크, 무질서 등은 개인의 행동과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확인되어 왔으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지역유대의 유형으로 보았던 지역사회애착과, 지역무질서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애착 변수에서 자신의 거주지역에 대해 애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무질서의 경우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보고되어 왔으나(전신현, 2003; Ross & Mirowsky, 2001; Haney, 2007),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Raudenbush와 Bryk(2002)는 2수준 변수(지역변수)의 실질적 유효성이 없다는 선부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다. 즉 대부분의 다층모형 분석이 1수준 변수를 합산하여 2수준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는데, 이럴 경우 동일한 개인수준의 변수에 비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지역변수에 대해서는 단정적 결론보다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변수로 유보해 두고자 한다.

V. 결론 및 함의

1. 결과요약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고2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지역 간 차이와 그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개인에 대한 지역환경의 고유한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아개념은 개인과 부모를 비롯한 인접환경의 구조적, 관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심리요소라는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간과되었던 지역특성 요인이 새롭게 고려됨으로써 자아개념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아지고, 특히 지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한부모가정 비율, 범죄율, 개인이 느끼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검증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독창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요인으로는 성별과 학업성취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인접환경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 교사애착과 친구애착, 나아가 지역애착까지 자아개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은 의미있는 발견이다. 이는 거시환경체계인 지역환경과 개인심리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인접환경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구조적 지역요인인 한부모비율과 범죄발생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지역의 한부모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발생율은 낮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아지고 있었다. 개인의 가족유형인 양친부모 여부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으나, 지역단위에서 가정적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개인의 자아개념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역환경과 비교하여 개인의 가정적 조건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이는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이 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Jenks & Mayer, 1990)⁶⁾

또한 범죄발생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였다. 많은 비행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지역일수록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치안상태가 청소년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영역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인지적 지역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요인과 구조적 지역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사회애착, 지역무질서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두 자아개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인데, 모형에 투입된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Marsh(1990)의 학업성적과 자아개념에 대한 BFLPE(Big Fish Little Pond Effect) 이론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 학업성적이 동일한 학생이라도 그들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상호경쟁과 비교심리에 의해 자아개념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집단효과를 말한다. 동일한 성적을 가지고도 평균성적이 높은 학급에 속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낮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고 평균성적이 낮은 학급에 속하면 오히려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2. 합의

본 연구는 지역효과가 자아개념에 주는 영향을 생태체계적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이라는 거시체계에 대해 구체적, 실증적으로 그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합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분석한 결과인데, 지역별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아개념이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로 청소년기에 발달하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 이렇듯 중요한 자아개념이 거주지역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지역복지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시·군·구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전달체계가 존재하는 단위로서 이에 따른 자아개념의 편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반한 지역차원의 집합적 개입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복지 분권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중앙집권적 국가일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고 지역 간 평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병현, 2006). 이렇게 볼 때 지역 간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의 구조적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는 형평성과 포괄성을 지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의 개별적 상황과 독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가정적 취약성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과 지역환경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한 지역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지역차원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동아리활동, 봉사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한 부모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가족구조의 취약성과 경제적 빈곤이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단위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책적 개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애착변수 중 지역애착이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애착은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차원의 다양한 개입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희망적인 결과로서 지역 빈곤율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구조적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 보다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빈곤층이 지역사회의 신뢰, 참여수준,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기 때문이다(김형용, 2010). 따라서 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높이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애착감정을 갖도록 하는 지역차원의 집합적 노력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분석단위인 ‘지역’ 개념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조사 응답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이해한 ‘지역’과 본 연구의 분석단위로 사용한 ‘지역’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응답자들의 입장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지역으로 인식하고 응답했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연구에 있어 주민의 이동성(mobility)은 지역의 취약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과 같은 도시화 규모에 따라 청소년의 성취와 발달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미영, 2008; Sampson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대규모 전국자료를 통해 지역효과의 실재(實在)를 확인함으로써 지역효과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했다는 장점을 갖는 대신 2차 자료 사용으로 변수의 정교한 측정에 일정 부분 한계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고수정 (2010). 지역별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2(3), 169-195.
- 곽현근 (2008).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동네효과연구. **지방정부연구**, 12(4), 203-224.
- 곽현근, 유현숙 (2007). 사회적 배제로서의 주거지 격리가 주민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3, 65-90.
- 김동배, 이희연 (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 **연세 사회복지연구**, 9, 27-58.
- 김세원 (2009). 지역사회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2-135.
-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인문발달연구**, 17(4), 1-18
- 김영미 (2010). 이웃환경과 청소년의 가족환경스트레스, 학습된 무력감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32-262.
- 김영빈 (2008).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의 경험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교육학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위정 (2004).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도시연구**, 9, 87-114.
- 김윤희, 조영태 (2008). 지역특성이 취약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구학**, 31(1), 1-26.
- 김지영, 이형실 (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22(1), 21-32.
- 김형용 (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 사회자본 맥락효과에 대한 해석. **한국사회학**, 44(2), 59-92.
- 김희운 (2010). **동네환경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호 (2000). 지역사회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7(1), 125-148.
- 박병헌 (2006).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2), 1-31.

- 서혜은 (2009).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 (1994). 자아개념의 위계적 구조. **교육심리연구**, 8(2), 47-68.
- _____ (2000). 자아개념 위계구조의 재조명. **교육심리연구**, 14(4), 73-104.
- 엄신자 (200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인간과 복지.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유대, 지역사회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지**, 18(1), 327-350.
- 윤혜미, 박병금 (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 이동원 (2005).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비행. **한국공안행정학회보**, 46(19), 357-383.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미혜 (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사라 (2000). **부모와 또래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1), 141-170.
- 이은주, 정익중 (2010). 청소년비행과 일탈적 자아개념의 상호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2), 447-468.
- 이주옥 (1987). 지역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성역할유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8(1), 41-61.
- 장수정 (2001). **고등학생의 다면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신현 (2003). 지역특성이 성인의 정신,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3(6), 113-134.
- 정문성 (1992). 거주환경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8, 78-102.
- 정수자 (1999).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13(3), 307-329.

- 정연정, 엄명용 (2009).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4), 5-33.
- 최미영 (2007). **노인우울에 미치는 동네효과와 사회자본의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행정학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일섭, 이현주 (2006).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장원, 김희진 (2011).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73-103.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 51-177.
- 홍영수, 김동기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감과 사이버비행의 구조적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 127-148.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Adams, G. R., & Marshall, S. K. (1996).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Understanding the person-in-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19(5), 429-442.
- Aneshensel, C. S., & Sucoff, C. A.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Behavior*, 37, 293-310.
- Altman, L., & Low, S. (1992). *Place Attachment*. NY: Plenum Press.
- Atkins, R., & Hart, D. (2003). Neighborhoods, adults, and the development of civic identity in urban youth.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3), 156-164.
- Bliese, P. D. (2000). Within-group agreement, non-independence, and reliability implication for data aggregation and analysis in Multilevel Theory. *Research and Methods in Organization* (Eds.), 349-381.
- Boardman, J. D., & Robert, S. A. (2000).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perception of self-efficacy. *Sociological Perspectives*, 43(1), 117-136.
- Brooks-Gunn, J., Duncan, G. J., & Aber, J. L. (1997).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rane, J. (1991). The epidemic theory of ghettos and neighborhood effects on

- dropping out and teenage childbear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5), 1126-1159.
- Dallago, L., Perkins, D. D., Santinello, M., Boyce, W., Molcho, M., & Morgan, A.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 148-160.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A Journal of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uncan, C., Jones, K., & Moon, G. (1999). Smoking and deprivation: Are there neighborhood effects?. *Soc, Sci, Med*, 48(4), 497-505.
- Durant, R. H., Cadenhead, C., Pendergrast, R. A., Slavens, G., & W Linder, C.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use of violence among urban black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4), 612-617.
- Ellen, E. P., & Hurley, S. (2008). Disentangling ethnic and contextual influences among parents raising youth in high-risk communiti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2(4), 211-219.
- Elo, I. T., Mykyta, L., Margolis, R., & Culhane, J. F. (2009). Percep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The role of individua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social science quality*, 9(5), 1298-1320.
- Geis, K. J., & Ross, C. E. (1998). New look at urban alienation: The effect of neighborhood disorder on perceived powerlessn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3), 232-246.
- Haney, T. J. (2007). Broken windows and self-esteem: Subjective understandings of neighborhood poverty and disorder. *Social Science Research*, 36, 968-994.
- Hart, D., Atkins, R., & Matsuba, M. K. (2008). The association of neighborhood poverty with personality change in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1048-1061.
- Hull, P., Kilbourne, B., Reece, M., & Husaini, B. (2008). Community involvement

-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oderating effects of race/ethnicity and neighborhood disadvantag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4), 534-551.
- Jencks, C., &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ynn, & McGreary (Eds.),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pp.111-186).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Mazefsky, C. A., & Farrell, A. D. (2005). The role of witnessing violence, peer provocation,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practices in the aggressive behavior of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4(1), 71-85.
- Musterd, S., & Andersson, R. (2006). Employment, social mobility and neighborhood effects: The case of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0(1), 120-140.
- Nottelman, E. D., (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441-45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Sage Publications.
- Rosenberg, M. (1985). Self 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Leahy (Ed.), *The development of self*(pp55-121). Academic Press.
- Rodgers, J. L., & Rowe, D. C. (1993). Social contagion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A developmental EMOSA model. *psychological review*, 100(3), 479-510.
- Rogers, R. W. (1983). Cognitive and physiological processes in fear appeals and attitude change: A revised theory of protection motivation. In J. T. Cacioppo, & R. E. Petty (Eds.), *Social psychophysiology*(pp153-176). New York: Guilford Press.
- Ross, C. E., & Mirowsky, J. (2001). Neighborhood disadvantage, disorder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258-276.
- Santiago, C. D., Wadsworth, M. E., & Stump, J. (2011). Socioeconomic status,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verty-related stress: Prospec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syndromes among diverse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 218-230.

- Sampson, R. J., Morenoff,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 Social processes in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Sampson, R. J., & Raudenbush, S. R.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3), 603-658.
- Sampson, R. J., Raudenbush, S. R.,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havelson, R. J., & Bolus, R. (1982). Self concept: The interplay of theory and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1), 3-17.
- Shavelson, R. J., Huhner, J. J., & Stanton, G. C. (1976). Self-concept: Validation of construct interpret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6(3), 407-441.
- Thaweekoon, T. (2006). Effects of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on adolescent adjustment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USA.
- Turner, F. J. (1996).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 New York: The Free Press.
- Turley, R. N., & López, (2003). When do neighborhoods matter? The role of race and neighborhood peers. *Social Science Research*, 32(1), 61-79.

ABSTRACT

The effect of area on adolescents' self-concept

Kang, Hyun-Ju* · Nho, Choong-Rai**

Ecosystems perspective has often addressed the importance of macro environments such as areas or neighborhoods in dealing with adolescent behavior. However, this approach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identifying the effects of area on the personal level. This has made it difficult to draw implications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area effect so a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macro intervention in order to promote healthy development and adaptation among youth.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posed: Is there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oncept among youth according to their place of residence? If so, what personal and area factors cause such differences? This study used a multi-level analysis model while utilizing KYPS and other national da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oncept according to the place of residence. Further, the level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level of area attachment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The ratio of single parents and crime rates in residential areas are also predictive factors for are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elf-concept. The level of perceived area attachment and area disorder, which are considered beyond structural variables of area,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makes suggestions for collective intervention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Key Words : self-concept, area effect, area environment

투고일 : 9월 5일, 심사일 : 9월 26일, 심사완료일 : 10월 22일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ssistant Researcher

**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